



해설 시나리오

프로그램명	배우는 불국사, 느끼는 자연(불국사경내)
-------	------------------------

해설주제	세부 시나리오	
<p>안개와 구름을 도해내는 도함산</p>	<p>도 함 산</p>	<p>여러분 지금 경주하면 머릿속에 떠오르는 것이 있으세요?(탐방객 답, 불국사) 예, 여러분의 대답들이 다 맞습니다.</p> <p>사람들은 불국사, 석굴암이라는 최고의 유산만 기억하시고 그러한 유산과 함께한 도함산은 잘 알지 못하시더라구요. 그래서 도함산이 서운해 할까봐 제가 간단하게 도함산을 소개하겠습니다.</p> <p>도함산은 이름에 대한 세 가지의 유래가 전해지고 있습니다.</p> <p>첫째, 도함산의 한자를 풀이하면 도함 ‘도’에 머금을 ‘함’자를 써서 머금고 도한다는 뜻이 됩니다. 실제로 동해의 안개와 구름을 머금어 토하는 형태의 경관을 자아내어 많은 분들이 동해의 일출을 보기위해 찾는 곳입니다.</p> <p>둘째, 도함산의 산신령이 된 석탈해의 이름에서 유래한 것으로 “탈해를 토해라고도 한다”는 기록에 근거한 것으로 토해와 탈해는 유사음입니다.</p> <p>셋째, 도함산지역에서 화산이 폭발하여 불을 뿜어내는 모습을 보고 토함으로 불리게 되었다는 견해 등이 있습니다.</p> <p>또한 신라의 5악(동:도함산, 서:계룡산, 남:지리산, 북:태백산, 중:팔공산)의 하나(동악)로써 왜구를 소탕하는 요새로 ‘호국의 진산’으로 신성시 된 산입니다.</p> <p>다시 말해 불국사를 감싸 안고 신라천년의 역사를 함께한 도함산은 불교문화 유산을 간직하고 있는 숭고한 산입니다.</p>
<p>불국사의 재미있는 창건설화</p>	<p>불 국 사 의 역 사</p>	<p><재건 전 후의 사진></p>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around;"> <div style="text-align: center;">  <p>▲청운교, 백운교 재건 전</p> </div> <div style="text-align: center;">  <p>▲청운교, 백운교 재건 후(현재)</p> </div> </div>






해설주제	세부 시나리오
<p style="text-align: center;">불국사의 재미있는 창건설화</p>	<p style="text-align: center;">세부 시나리오</p> <p>여러분 다른 사찰에 다녀오신 경험이 있으세요? 한국 사람은 부석사를, 일본 사람들은 선암사를, 서양 사람은 불국사를 더 좋아한다고 합니다. 서양 사람들이 불국사를 좋아하는 이유는 자연과 인공을 대비시킨 조화의 멋을 높이 평가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럼 자연과 어우러진 사찰이 아름다운 불국사 속으로 들어가 볼까요~ 아름다운 불국사가 어떻게 지어졌는지부터 이야기해보 따리를 풀까 해요.</p> <p>불국사가 창건에는 세 가지 설이 있습니다.</p> <p>첫째는 신라 경덕왕 때에 김대성이라는 사람이 부모님을 위해서 지었다는 설과 두 번째는 법흥왕의 어머니인 영제부인에 의해서 창건되었다는 설이 있으며, 마지막으로 신라 눌지왕 시대에 아도화상이 창건했다는 설입니다.</p> <p>이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설화가 바로 삼국유사(삼국유사 <향전>)에 나오는 김대성에 관한 설화입니다.</p> <p>자~ 지금부터 김대성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p> <p>(심화)</p> <p>신라시대의 한 마을에 김대성이라는 가난한 사람이 살았습니다. 절에 시주를 하면 복을 만 배로 얻는다는 정개스님의 말을 듣고 자기가 가지고 있던 소중한 재산인 밭을 절에다가 바치고 그 후 얼마 뒤 죽게 되었습니다. 그 후 전생에 대한 보답으로 부잣집 아들로 다시 태어났고 김대성은 지금의 자신을 낳아 준 부모님을 위해 불국사를 짓고, 전생의 부모님을 위해 석굴암을 지었다고 합니다.</p> <p>하지만 김대성이 완공하지 못한 채 죽자 나라에서 말아 절을 약 30년간에 걸쳐 마무리 했다고 합니다.<출처 : 삼국유사 대성효이세부모조, 불국사사중기(佛國寺寺中記)></p> <p>(어린이를 위한 설화)</p> <p>삼국유사에는 김대성에 관한 재미있는 전설이 전해 내려온답니다.</p> <p>옛날 신라 땅 모량리 에는 김대성이라는 농부가 흠어머니를 모시고 「복안」이라는 부자집에서 머슴살이로 가난하게 살았다고 합니다.</p> <p>어느 날 아침 한 노승이 주인집을 찾아와서 부처님께 드릴 시주를 하라고 하는데 주인 복안은 비단 50필을 부처님께 시주를 하였는데 스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오늘 이 시주는 나중에 만 배의 값어치가 되어 돌아 갈 것이요” 라고 하셨습니다. 그 말을 들은 대성은 얼른 집으로 달려가 어머니께 말씀 드렸습니다.</p> <p>“어머니, 어머니, 오늘 제가 아주 좋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p> <p>하고는 조금 전에 들은 이야기를 어머니께 자세히 말씀드리고,</p> <p>“우리는 조상 중에 아무도 좋은 일 한 사람이 없어 이렇게 평생 가난하게 사는 가 봅니다. 우리도 부처님께 시주 드려요.”</p> <p>하고 말씀 드렸더니 어머니께서 근심어린 얼굴로</p> <p>“대성아, 하지만 우리는 가난하니 당장 뭘 시주 한단 말이나? 안타깝구나...”</p> <p>“어머니, 제가 평생 벌어 모은 작은 밭이 있잖습니까? 우리 그 밭을 시주해요, 네?” 라고 말씀드리니 어머니는</p> <p>“그 밭은 네가 평생 모은 재산인데 차마 그 밭을 어떻게....”하시며 안타까워하시자</p> <p>“괜찮아요. 어머니, 제가 열심히 일 해서 또 벌면 되요.” 하고는 신나게 달려갔습니다.</p> <p>밭을 시주 하고 난 후 대성은 아무런 원인도 없이 시름시름 앓다 그만 갑자기 죽고 말았습니다. 대성이 죽던 날 흠어머니는 통곡을 하며 아들을 부둥켜안았습니다.</p>





해설주제	세부 시나리오
<p>불국사의 재미있는 창건설화</p>	<p>그런데 이상하게도 대성의 몸에서 신비한 빛이 나오더니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그날 밤 제상 「김문량」이라는 사람이 밤하늘을 바라보고 있는데 하늘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려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p> <p>“모량리에 사는 대성이 너의 집에 다시 태어나리라 !!”</p> <p>깜짝 놀란 김문량은 이튿날 사람을 보내 알아 봤더니 정말 김대성이란 사람이 그날 밤 죽은 것이 아니겠어요?”</p> <p>하늘에서 그 소리를 들은 후 김문량의 아내는 임신하여 열 달 후 애기를 낳았는데 신기하게도 한 손을 꼭 쥐고 퍼질 않았답니다. 7일 후 스스로 손을 펴는데 손바닥에 “김대성”이라 새겨진 금간자(金簡字 금판)가 있어 이름을 대성이라 지었습니다. 부잣집에서 다시 태어난 대성은 훌륭하게 잘 자라 토함산에서 공사냥을 즐겼는데 하루는 밤이 어두워 산 밑 마을에서 잠을 자는데 꿈에 곰 귀신이 나타났답니다.</p> <p>“네 이놈 ! 너는 어이하어 우리를 죽였느냐? 내 오늘 너에게 복수를 하리라.” 하며 화가 난 표정으로 여러 마리의 곰 귀신이 나타나 대성을 쫓아왔습니다. 놀란 나머지 대성은 달아났지만 곰에게 붙잡히자 끓어앉아 싹싹 빌었습니다.</p> <p>“제 제발 살려주세요. 앞으로 공님이 시키는 데로 다 하겠습니다. 흑흑...”</p> <p>그러자 곰이 “네 이놈, 그럼 우리 공들을 위하여 절을 지어줄 수 있느냐?”</p> <p>“예, 예, 짓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무고한 생명을 다시는 죽이지 않겠습니다.” 하고 약속을 하였습니다.</p> <p>그 후 대성은 곧 웅수사(장수사)라는 절을 지어 공들과의 약속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그 때부터 부처님께 열심히 기도 하며 참회를 하고 소원도 빌었습니다. 부처님의 도움일까요? 김대성은 어른이 되어 높은 벼슬에 올라 제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부처님의 말씀에 감동받아 전생의 가난했던 흠어머니를 위하여 석불사(석굴암으로 잘못 불림)를 세우고 다시 태어난 집 부자 부모를 위해서는 불국사를 세웠다는 재미있는 전설이 전해 내려온답니다.</p> <p>김대성이 처음 불국사를 세웠을 때는 지금 현 모습보다 열배나 훨씬 크고 아름다웠습니다. 2천여 칸에 80여동의 목조건물이 있었으나 지금은 원래의 모습을 잃고 작은 절이 되었지요.</p> <p>왜 그럴까요?</p> <p>예, 맞아요, 임진왜란 때문이죠.</p> <p>1593년(조선 선조26년 5월) 왜구의 침입으로 모두 불타 버리고 불에 타지 않는 석축, 백운교와 청운교, 연화교와 칠보교, 다보탑과 석가탑 그리고 비로자나부처님, 아미타여래, 이렇게만 남았답니다.</p> <p>당시 일본군의 눈을 피해 승병들이 창과 칼 등을 대웅전 벽속에 감추었는데 아름다운 불국사의 경내를 감상하며 감탄하다 무기가 감추어진 것을 발견하고 절을 지키던 여덟 명의 스님들을 발로 밟아죽이고 모두 불태워 버렸다고 합니다. 그때 난을 피하여 문수사(또는 웅수사)에 피해있던 주지 스님이 도착 하였을 때는 이미 불길에 휩싸여 부처님 두 분 만 겨우 살려 낼 수 있었다고 합니다.</p> <p>그 후 목조 건물들은 수십 차례의 중수를 거쳐 1970년 초 정부 주도의 대대적인 중건공사를 통해 통일신라식 쌍탑가람의 체재와 모습을 어느 정도 되찾게 되었습니다.</p>

해설주제	세부 시나리오	
불국사의 가람배치	가 람 배 치	<p>이제 사찰의 가람배치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아시겠죠? 그럼 불국사의 가람이 어떻게 배치 되어있는지 눈으로 보며 자세히 살펴보고 지금으로부터 약 1300여년 전의 시대로 거슬러 올라가 그 당시의 찬란했던 역사 속으로 타임머신을 타고 여행을 떠나겠습니다. 준비 되셨죠? (예) 자, 그럼 역사 속 현장으로 출발하겠습니다. <천왕문으로 이동></p>
불국사에 들어가는 첫 번째 문	일 주 문	<p>여러분들이 여기까지 오시면서 문을 하나 통과 하셨을텐데요. 그 문 현판에 쓰여 있는 한자를 보셨나요? 무엇이라고 적혀있었는지 기억나시는 분 계십니까? 예, 맞습니다. 불국사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부처불(佛) 나라국(國) 절사(寺) 즉 재상 김대성이 부처님 나라를 경전에 있는 그대로 세운 절이 바로 불국사입니다. 그래서 일주문을 통과해서 들어가면 바로 부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되겠죠? 주택에 문패가 있는 것처럼 사찰에도 문패의 역할을 하고 있는 현판이 있습니다. 그 현판을 받치고 있는 문을 일주문이라고 합니다. (보충: 일주문은 불국사 초창기부터 있던 것이 아니라 대대적인 복원공사에 따라 진입로의 적절한 위치에 세운 것입니다.) 불국사의 일주문은 우리나라의 사찰 가운데 규모가 가장 큰 문인데, 부처님의 나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일주문을 거쳐야 합니다. 인간세계와 부처세계의 경계라 할 수 있는데 왜 일주문이라고 하였을까요? 일주(一株)라고 하는 한자를 풀이해보면 기둥이 하나라는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일주문의 문을 살펴보면 양쪽으로 기둥이 한 개씩 서 있는 것을 보실 수 있는데 측면에서 바라보면 기둥이 겹쳐 보여 마치 하나인 것처럼 보입니다. 이것은 곧 부처님의 세계로 들어올 때에는 하나 된 마음으로 들어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 하나의 특징은 일주문에는 문이 달려 있지 않습니다. 부처님의 세계로 들어가 고자 하는 사람은 누구나 들어오라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p>
두 번째 문 사천왕문	천 왕 문	<p>잠시 안으로 들어와 보실까요? 성스러운 부처님 나라에 악한 사람 나쁜 사람 아무나 가면 안 되겠죠? 그래서 부처님나라로 들어가는 맨 처음 관문인 수미산 중턱 동·서·남·북 사방 하늘을 지키는 왕이 사천왕이랍니다. 사천왕을 본 느낌이 어떤가요?(얼굴이 무서워요) 발 아래를 한번 보세요. 악귀들이 밝혀서 고통을 받고 있는 모습이 보이죠? 여기를 통과하는 모든 분들은 마음을 가다듬고 앞으로 착하게 살겠다고 약속하고 들어가야겠죠? 몇 분의 신들이 계시는지 볼까요? 천왕문 안에는 눈이 부리부리하고 다소 우락부락하게 생긴 네 명의 천왕이 있어서 사천왕이라고 합니다. 이들은 부처님의 나라를 지키는 수호신과 같은데, 본래에는 인도에서 귀신을 다스리던 왕이었으나, 석가모니에게 강화되어 불법을 지키는 수호신이 되었다고 합니다. 천왕문 안을 자세히 살펴보면 동쪽을 지키는 지국천왕과 서쪽을 지키는 광목천왕 그리고 남쪽을 지키는 증장천왕, 북쪽을 지키는 다문천왕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p>

해설주제	세부 시나리오	
<p style="text-align: center;">두 번째 문 사천왕문</p>	<p>천 왕 문</p>	<p>(심화) 그럼 사천왕들이 어떤 표정을 짓고 손에 무엇을 들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주의할 것은 사찰마다 사천왕의 배치와 가지고 있는 기물이 서로 다른데요. 이것은 나라와 사찰마다 또는 경전마다 사천왕상의 배치와 사천왕이 들고 있는 기물에 대한 설명이 다양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에서는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는 불교입문서의 내용을 바탕으로 사천왕에 대한 설명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지국천왕은 비파를 들고 있는 것이 특징으로 인간의 감정 중에서 기쁨의 세계를 관장하고, 계절 중에서는 봄을 관장한다고 합니다. 광목천왕은 용과 여의주를 들고 있는 것이 특징이고 노여움의 감정을 주관하면서 가을을 관장하고 서쪽하늘을 다스린다고 합니다. 증장천왕은 칼을 들고 있는데요. 사랑의 감정을 주관하며 여름을 관장하고 남쪽하늘을 다스린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다문천왕은 탐과 깃대를 들고 있습니다. 즐거움의 감정을 주관하고 겨울을 관장하며 북쪽하늘을 지배하고 있다고 합니다. 사찰의 입구를 지키는 사천왕이 이제는 무서운 존재가 아닌 듩직한 존재로 느껴지시나요?</p>
<p style="text-align: center;">사찰에서 이것만은 지켜주세요</p>	<p>사 찰 예 절</p>	<p>불국사를 관람하시기 전에 먼저 지켜야 할 세 가지 사찰예절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첫째, 대웅전 중앙 길로 가는 것을 삼가셔야 합니다. 그 이유는 대웅전 가운데 길은 여러 높은 신들과 큰스님이 다니는 길이기 때문에 일반 사람들이 중앙으로 가는 것은 사찰예절에 벗어나는 행동입니다. 그럼 어디로 올라갈까요? 예, 대웅전 양 옆의 계단으로 올라가시면 됩니다. 둘째, 사찰은 스님들이 수도를 하는 곳이기 때문에 조용한 목소리로 이야기하여야 합니다. 셋째, 사찰 안의 문화유산을 관람하실 때 다녀간 흔적(낙서, 문화유산에 걸터앉기, 문화재 만지기 등)을 남기시면 안 됩니다. 우리의 소중한 문화유산은 우리 개인의 것이 아니라 미래세대에 고스란히 남겨주어야 하는 것입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천년의 세월을 견뎌 온 다리</p>	<p>청 운 교 · 백 운 교</p>	<p>불국사경내에는 국보가 총 일곱 개 있는데 그 중에서 우리가 서 있는 이 공간(청운교 백운교 앞)에는 두 개의 국보가 있습니다. 국보를 한번 찾아보실까요? 예, 이 공간 안에 있는 국보는 청운교와 백운교, 연화교와 칠보교입니다. 연화교와 칠보교는 여기서 잘 보이지 않기 때문에 잠시 후에 더 잘 보이는 공간으로 이동하여 설명해드리겠습니다. 국보 제23호인 청운교, 백운교는 대웅전으로 통하는 계단입니다. 위쪽 5.4m인 16계단이 백운교이고, 아래쪽의 6.3m인 17계단으로 된 청운교입니다. 청운교를 푸른 청년의 모습으로, 백운교를 흰머리 노인의 모습으로 빗대어 놓아 인생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총 계단 수는 33계단이고, 33이라는 숫자는 (불교에서) 인생의 고난과 역경을 의미하고 이 단계를 벗어나면 부처님 나라에 다다른다는 뜻이죠. 청운교를 자세히 보면 안쪽이 동그란 아치형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약 45°의 경사를 보이는 이 석재는 설계에서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만들어졌으며, 좋은 화강암을 써서 다듬은 수법도 정교합니다. 이런 다리를 무지개 모양을 닮았다고 해서 ‘홍예다리’라고 하는데 홍예다리는 양끝이 처지고 가운데가 무지개처럼 굽어 있는 모양의 다리를 말합니다. 청운교를 이렇게 만들어 놓은 이유는 다리 안쪽으로 물이 흘렀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연못이 사라지고 없지만 예전엔 연못이 있었다고 합니다.</p>

해설주제	세부 시나리오	
<p>천년의 세월을 견뎌 온 다리</p>	<p>청운교 · 백운교</p>	<p>예전에 지어진지 20년도 채 안된 성수대교(보충: 1979년 준공- 94년붕괴)가 무너진 사건을 아시죠? 많은 사람들이 죽고 다쳐서 우리를 안타깝게 했던 사건이었는데요. 하지만 청운교와 백운교는 천년의 세월을 넘어 현재까지도 그 모습을 간직한 채 전해져 오고 있습니다. 우리 옛 선조들의 우수성을 그대로 보여주는 자랑스러운 문화재입니다.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것도 바로 이런 이유입니다.</p>
<p>자줏빛 안개의 자하문</p>	<p>자하문</p>	<div data-bbox="600 539 1273 902" data-label="Image"> </div> <p>청운교 백운교를 지났으면 법당이 나오는 것이 일반적인데 왜 이곳에 문이 있을까요?</p> <p>저 문은 자하문(붉을 “자”(紫)이고 두 번째는 안개 “하”(霞)라는 한자입니다)인데 자줏빛 안개라는 뜻으로 부처님의 몸에서 나오는 후광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계단 밑의 인간 세계를 지나 계단을 오르면서 고뇌와 좌절을 극복한 후 이 문을 들어서서 부처님 품으로 들어가도 된다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 이 문이 있습니다. 불교의 교리가 건축적으로 잘 표현되면서 그냥 지나칠 수 있는 길에도 이러한 의미를 부여해서 지었다는 것이 정말 놀랍고 대단하죠?</p> <p>여러분 지금까지 몇 개의 문을 설명해드렸죠? 예, 사찰을 방문했을 때 처음 만나는 일주문과 사천왕이 있는 천왕문 그리고 부처님의 세계로 인도하는 자하문을 거쳐 왔고 이 3개의 문을 설명해드렸죠. 청운교와 백운교는 국보로 지정되어 직접 올라갈 수 없는 아쉬움이 있기 때문에 눈으로 한번 올라갔다 내려와 볼까요? 여러분, 아래 주위를 보세요. 여러분이 보실 때는 일반적인 돌단이지만 이곳에는 놀라운 건축기법이 숨겨져 있습니다. 기단부 석축의 아랫단은 자연석을 이용하였고 윗단은 울퉁불퉁한 자연석 위에도 맞닿는 면을 맞춰 다듬은 석재를 얹는 방식을 사용하였습니다. 이러한 건축기법을 그랭이라고 하는데 이 기법은 목조건축에서 초석 위에 기둥을 올릴 때 주로 사용하는 방법이지만 오래전부터 성곽 축조 등에서 많이 사용되었습니다. 이처럼 그랭이 기법을 이용하여 돌의 위와 아래를 잘 맞물리게 하여 쌓은 덕분에 석축이 오랜 세월을 무너지지 않고 잘 견딜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랭이 기법으로 지어진 2단의 석단은 부처님의 세계를 상징하고, 다듬어지지 않은 아랫단은 우리 인간세계를 표현한 것이라고 합니다. 이전에 아치형으로 된 구름다리를 설명해드렸죠? 이 구름다리는 무지개모양의 곡선을 이루고 있는데 이처럼 아치형 석축을 쌓는 방법은 못이나 다른 재료를 사용하지 않고 잘 다듬은 사다리꼴의 돌을 서로 다른 모양으로 조각하여 견고하게 맞추어가면서 아치형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 석주들이 힘을 분산시켜 이곳을 지지하여 지금까지 그 모습을 유지해 왔습니다.</p>

해설주제	세부 시나리오	
<p>자춧빛 안개의 자하문</p>	<p>자하문 ^ 건축양식 v</p>	<p>다리가 있는 석축 아래쪽으로 연못이 있었다고 전해지고 있는데 지금도 계단 왼쪽에 물이 떨어지도록 만들어 놓은 수구장치가 남아 있습니다. 이곳에서 물이 떨어지면 폭포처럼 부서지는 물보라에 의해 무지개가 떴다고 전하고 있어, 무척이나 아름다웠을 옛 불국사를 마음속으로 그려보게 합니다.</p>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around;"> <div style="text-align: center;">  <p>▲ 수구</p> </div> <div style="text-align: center;">  <p>▲ 대석단</p> </div> </div> <div style="text-align: center; margin-top: 10px;">  <p>▲ 아치형</p> </div>
<p>불국사 가람배치의 중심-대웅전</p>	<p>대웅전</p>	<p>여러분, 자하문을 통해 사찰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국보로 지정된 이후 문화재를 보호하기 위한 차원에서 옆 오르막길을 통해 불국사의 중심인 대웅전 영역으로 이동하겠습니다. <대웅전으로 이동></p>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around;"> <div style="text-align: center;">  <p>▲ 좌경루</p> </div> <div style="text-align: center;">  <p>▲ 범영루</p> </div> </div> <p>왼쪽 석축 위에 있는 것은 좌경루이고 오른쪽 화려하게 장식된 것은 범영루입니다. 어느 것을 먼저 살펴볼까요?</p>

해설주제	세부 시나리오	
<p style="text-align: center;">불국사 가람배치의 중심-대웅전</p>	좌 경 루 ◦ 범 영 루 ◦ 사 물 ∧ 四 物 ∨	<p>좌경루로 먼저 가보도록 할게요. 원래는 부처님의 말씀이 담긴 경전을 보관하는 곳인데 지금은 사물의 하나인 목어와 운판이 걸려있습니다. 좌경루에서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것은 나무로 만든 물고기입니다. 자세히 볼까요? 머리는 용인데 몸은 물고기 모양이죠. 속도 비어 있습니다. 피리의 속이 비어 있는 것과 같아요.. 이런 물고기는 나무로 만들었다는 뜻에서 목어라고 합니다. 그 옆에 금속판이 하나 걸려 있습니다. 구름 모양 판이라고 해서 운판이라고 합니다. 다음으로 범영루를 볼까요? 석가탑이 있는 부근으로 가면 범영루가 있습니다. 범영루 안에는 거북 한 마리가 등에 큰 북을 지고 있습니다. 가까이에서 보고 싶지만 북이 있는 곳까지 들어가면 안 되기 때문에 약간 멀리서 볼까요? 씨익 웃고 있는 거북의 얼굴이 보이시죠? 범영루의 거북 법고나 좌경루의 목어, 운판 그리고 범종은 대부분 절에서 꼭 갖춰 두는 것으로 불전사물이라고 합니다. 스님들이 새벽과 저녁 예불 전에 친답니다. 예불 전에 이 소리를 들으면 깨달음에 빨리 다다른다고 합니다. 온갖 잡념이 사라지겠죠? 위의 4가지 사물은 북·징·목탁·태평소로 바뀌고 지금은 다시 북·장구·징·꽝과리의 네 민속타악기로 바뀌어 사물놀이의 기원이 되었습니다.</p>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around; align-items: center;">     </div>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around; align-items: center; margin-top: 5px;"> ▲목어 ▲운판 ▲법고 ▲범종 </div>
<p style="text-align: center;">우리나라 자랑스런 국보 -다보탑과 석가탑</p>	석 가 탑 ◦ 다 보 탑	<p>이 대웅전 영역에는 국보가 3가지 숨어 있습니다. 같이 찾아볼까요? 그 중 두 가지는 우리의 눈에 보이고 한 가지는 숨어 있습니다. 여러분, 좌우로 우뚝 솟은 탑 두기가 보이십니까? 바로 여러분이 보고 계시는 저 두기의 탑이 국보입니다. 그럼 절에는 왜 탑을 세울까요? 원래 탑은 석가모니 부처님의 진신사리를 모시고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자, 이제 석가탑과 다보탑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석가여래는 현세 불 즉 현재 우리 인간의 생명을 다스리는 부처님이요 다보여래는 석가 이전의 과거불을 의미 합니다. 석가탑과 다보탑이 이곳에 나란히 서 있는 것은 불교의 경전 가운데 하나인 법화경에 나오는 내용에 따른 것입니다. 국보 21호인 석가탑은 석가모니 부처님이 이 탑의 모습으로 항상 진리의 말씀을 하고 계시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탑 이름도 [석가모니상주설법탑]이지요. 그럼 다보탑은 무슨 의미일까요? 석가모니 부처님이 진리의 말씀을 설법하시면서 옆에서 다보여래가 듣고 “그래 맞다”하고 증명하는 모습이라서 [다보여래상주증명탑]이지요. 그래서 두 분의 부처님이 이곳에서 마주보며 만나고 계시는 모습이랍니다.</p>

아사달과
아사녀의
전설이 있는
석가탑

석
가
탑



그럼 석가탑을 먼저 살펴볼까요?

석가탑은 불국사 삼층 석탑이라고도 불리는데 국보 제21호로서 높이 8.2m이고 기단 폭은 4.4m입니다.

석가탑 밑 부분의 기단 주위를 한번 살펴보세요.

연꽃모양의 돌들이 있죠? 왜 기단 주위에 연꽃모양의 돌(심화설명: 연꽃이 조각된 8개의 원형 연대를 배치하고 연대 사이에 장방형 돌로 연결하여 탑구를 설정)을 두었을까요?

예, 석가탑 주위를 둘러싼 이 연꽃모양의 돌들을 팔방금강좌대라고 부릅니다. 이는 성역으로서 탑의 구역을 표시한 것으로 연꽃 한 송이에 1보살씩 모두 8보살을 뜻하고 있습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석가모니가 제자들에게 설법하는 것을 보고, 다보여래가 석가모니의 말이 모두 사실이라고 말하는 것에 대해 사람들이 기뻐하며 꽃을 뿌렸던 그 모습을 뜻한다고도 합니다.

석가탑의 모습은 2층 기단위에 3층으로 탑신을 세우고 그 위에 상륜부를 조성한 신라 석탑 양식의 완성형으로 평가 되고 있습니다.

1960년대 중반(1966년 9월) 경주 어느 골동품 상의 사주를 받은 한 무리의 도굴꾼 들이 한밤중 석가탑을 자동차를 들어 올리는 책으로 탑 속의 유물을 훔치려다 실패하고 다음 날 또 다시 몰래 들어와 시도를 하다 그만 새벽이 되어 그대로 도망을 가 버렸는데 이를 발견한 스님의 신고로 곧 넘어질 것 같은 탑을 1966년 10월 해체 하였더니 2층 몸돌(몸체부)에서 많은 유물이 발견 되었습니다. 사리함, 사리병, 각종 사리들(공양구) 그리고 세상을 놀라게 한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목판 인쇄본인 「무구정광대¹⁾다라니경」이 비단에 곱게 싸여져 발견되었습니다. 이전까지는 일본 법륜사에서 발견된 목판 인쇄본이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것으로 알려 졌으나 그보다 약 30년 앞선다고 밝혀져 자랑스런 우리 문화의 우수성을 다시 한번 세상에 알리는 계기가 되기도 했습니다.

경주국립박물관 미술관 2층에 가시면 석가탑에서 출토된 유물들을 보실 수 있습니다. 무구정광대다라니경¹⁾은 중앙박물관에 가야 볼 수 있습니다.

1) 다라니경 : 석가모니의 말씀 중에 가장 핵심적인 진리의 말씀을 간추린 것을 말합니다.

해설주제	세부 시나리오
<p style="text-align: center;">대아사달과 아사녀의 전설이 있는 석가탑 웅 전 영 역</p>	<p>석가탑의 탑신부는 각 층마다 몸체석과 옥개석(지붕돌)으로 구성되어있고 상층 옥개석 위에는 화려하게 장식된 상륜부가 구성되어있습니다. 그러나 석가탑을 어느 정도 거리를 두고 자세히 살펴보면 조금 어색하다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가장 완벽한 탑이라고 했는데 어찌된 일일까요? 상륜은 원래 노반과 복발, 양화만 남아 있었으나 1973년 불국사 복원공사 때 남원 실상사 3층석탑의 상륜부를 그대로 본떠서 현재의 모습으로 복원한 것이랍니다.</p> <p>소박하게 생긴 석가탑은 무영탑이라고도 하는 데 전해지는 설화가 있습니다.</p> <p>『옛 백제 지역의 사람인 아사달은 서기 751년 신라35대 경덕왕 때 불국사 창건 공사에 참여하게 되어 젊고 아름다운 아내 아사녀를 고향에 남겨 놓고 신라로 왔습니다.</p> <p>아사달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쉴 새 없이 일에 열중하면서 다보탑을 완성하고 난 다음 석가탑 조각에 착수 할 무렵, 수년간 아사달의 소식을 기다리던 아사녀는 견디다 못해 신라까지 남편을 찾아왔습니다.</p> <p>그러나 여자는 부정하므로 신성한 사찰을 짓는데 함부로 출입을 해서는 안 된다는 불국사의 문지기 때문에 탑이 완성될 때까지 근처 연못에서 기다리고 있었으나, 아무리 기다려도 탑의 그림자가 떠오르지 않자 기다리다 지친 아사녀는 못 위에 비친 남편의 환영을 쫓아 그 속에 몸을 던졌다고 합니다.</p> <p>그로부터 불국사의 석가탑을 무영탑이라고 부르게 되었으며 그 못을 영지라 일컫게 되었습니다.』</p> <p>(어린이를 위한 설화)</p> <p>탑을 세울 때 신라에는 훌륭한 석공이 없어서 백제에서 「아사달」 이란 훌륭한 기술자를 초대하여 탑을 만들었습니다. 아사달은 온 정성을 다하여 탑을 세우는 데 몇 년을 사랑하는 가족을 만나지도 못 했습니다. 남편을 애타게 기다리며 그리워하던 아내 아사녀가 불국사로 남편을 찾아왔으나 스님께서는 부정이 탄다며 만나게 해 주지 않았는데 며칠 동안을 보고 싶은 남편을 기다리는 아사녀를 측은하게 여긴 주지스님이 “저 아랫마을 못에 가서 기다리면 탑과 당신 남편의 모습이 비칠 것어요,”</p> <p>이 말을 들은 아사녀는 며칠 밤낮을 연못가에서 기다려도 남편의 모습은 보이지 않고 어느 달 밝은 밤, 물에 아련히 비친 남편의 환영을 보고는 “여보, 아사달!!” 이라 부르며 물 속으로 달려가 끌어 안았습니다.</p> <p>‘풍덩’ 그만 아사녀는 달빛 가득한 물속으로 빠져 죽고 말았습니다.</p> <p>드디어 탑을 완성한 아사달은 아내가 기다리는 못으로 달려갔으나, 사랑하는 아내의 모습은 간데없고 그 날도 달은 환하게 물속을 비추고 있었습니다.</p> <p>이미 하늘나라로 간 아사녀, 아사달은 사랑하는 아내를 위해 부처님을 만들고 아내 곁으로 가버렸다는 애절한 전설이 전해 내려 온 답니다.</p> <p>오늘도 아사달과 아사녀의 사랑을 슬퍼하듯 무심한 달빛만 물속 가득 출렁인답니다.</p> <p>그래서 이 못을 후세 사람들이 아사달의 ‘그림자도 비추지 않는 못’이라고 「영지」라 부른답니다</p>

해설주제

세부 시나리오

화려한
조형미가
돋보이는
다보탑

다
보
탑



여러분, 혹시 10원짜리 동전의 주인공이 누군지 아시나요?

(다보탑을 지칭하며)

예, 맞습니다. 특이하게도 인물이 아닌 여기 있는 다보탑이죠. 그만큼 소중한 우리나라의 문화유산이기 때문이랍니다. 다보탑은 국보 제20호이며 통일신라시대 중기 특수형 석탑을 대표하는 탑으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다보탑의 높이는 10.4m로서 석가탑보다 조금 높고 매우 변화 많은 외관을 나타내고 있으나, 단층 기단 위에 4층의 탑신을 가진 석탑으로 볼 수 있습니다.(참고: 다보탑의 탑신부를 4층으로 보는 견해도 있고 3층으로 보는 견해도 있습니다. 3층에서 연꽃모양의 옥개석(지붕석)까지를 한층으로 볼 때는 4층의 탑신과 각각 옥개석을 올린 구조로 해석할 수 있고, 연꽃모양의 판석을 옥개석이 아닌 3층탑신부 중앙에 올린 연화대석으로 보고 그 위에 팔각의 옥개석을 올린 것으로 볼 때는 3층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사각형 기단의 사면에 각각 10단의 돌계단을 놓고 기단 모서리에는 훌륭한 솜씨로 조각된 돌사자를 놓았던 것으로 추측되나, 일제강점기에 세 개는 사라지고 현재는 얼굴이 깨어진 한 마리만 서쪽면 중앙에 1개만이 남아있습니다. (돌)사자는 불교에서 부처님 나라를 지키는 성스러운 짐승으로 여겨지는 동물입니다.

1층 탑신은 중앙에 정방형 찰주석과 ㄱ자형 단면을 가진 우주(또는 모서리기둥)를 놓은 후 위쪽에는 (목조건물에서 볼 수 있는) 첨차모양을 2중으로 새기고 그 위에 사각형 옥개석(지붕돌)을 올려놓았는데 처마 끝 윗면 모서리를 살짝 들어올라 가도록 하여 미묘하고 경쾌한 멋을 느끼게 합니다.

2층 탑신부 밑에는 사각난간을 배치하여 그 안쪽으로 8개의 대쪽 모양의 다리를 세워 그 위에 8각형의 판석을 올렸습니다. 3층은 팔각형의 판석 위에 난간을 두르고 연꽃모양이 옥개석을 올리고 그 위에 4층의 탑신부와 8각형으로 된 옥개석을 올린 독특한 형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보탑의 복잡하고 화려한 장식 및 독특한 구조와 표현법은 어느 나라에서도 볼 수 없는 것으로 단단한 화강암을 이용해 목조건축처럼 만든 석공의 솜씨가 놀랍습니다.

다보탑은 여성적인 섬세한 아름다움을 나타내는 반면 석가탑은 간결하면서도 힘이 충만한 남성미를 발산하는 것처럼 보인다고 하여 다보탑을 여성에 석가탑을 남성에 비유하기도 합니다.

해설주제

세부 시나리오



이러한 쌍탑 1금당 형식은 통일신라시대 사찰의 전형적인 가람배치형식입니다. (또는 쌍탑 1금당 형식은 통일신라시대 사찰을 지을 때 유행하던 가람배치 형식이었습니다.)

금당(대웅전)이란 황금색의 부처님이 모셔져 있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으로 흔히 법당이라고도 합니다.

법당은 법을 설하는 건물이라는 뜻이고 불보살(부처님과 보살)을 모시고 있기에 궁전(대궐)이라는 뜻의 전(殿)이라 존칭하고 있습니다.

법당은 그곳에 모셔져 있는 불보살님이 어떤 분인가에 따라 여러 가지 다양한 이름을 갖고 있습니다.

탑 뒤로 커다란 전각이 보이시죠?

지금 소개 해드릴 곳은 불국사에서 가장 중심이 되는 건물인 대웅전입니다. 대웅전은 <법화경>이란 불교의 경전에서 석가모니를 큰 영웅인 대웅으로 지칭한 것에서 유래 되었으며 그만큼 석가모니불을 가장 중요하게 여겨서 그 분을 모신 곳을 대웅전이라고 합니다.

석가모니를 주불로 모시는 대웅전은 영조 41년(1765)에 중창된 것으로 기단부 및 초석 등은 신라시대의 것이고, 상부건물은 18세기 중엽의 전형적인 구조양식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대웅전 앞에 석등이 보이시죠?

석등은 부처님의 세계를 밝혀주는 상징적인 건축물입니다.

석등을 향해서 부처님께 예의를 표하고 고개를 들다보면 석가모니의 얼굴이 직사각형의 구멍으로 보인답니다. 그때 소원을 빌면 이루어진다고 하니 여러분도 한번 소원을 빌어보도록 해요.

대웅전 처마 밑을 한번 보실까요?

용 두 마리가 조각되어 있는데 각각 다른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모습을 하고 있나요?

예, 용들은 각각 물고기와 여의주를 물고 있습니다.

옛날 사람들은 부처님이 있는 법당을 배라고 생각 했습니다. 이 배를 불교에서는 반야용선이라고 불렀는데 부처님은 이 배를 타고 사람들을 이끌어 극락세계로 갔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반야용선을 상징하는 용머리를 지붕 아래 만들어 놓았습니다.

또 다른 하나의 용은 왜 물고기를 물고 있을까요?

그 이유는 물고기가 잠을 잘 때도 눈을 감지 않는 모습을 보고, 항상 눈을 뜨고 중생을 구제하는 데 힘을 쓰라는 부처님의 말씀을 담아 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대웅전 내에는 임진왜란 이후에 만들어진 것으로 보이는 목조 석가삼존불이 모셔져 있습니다.

불국사의 중심
대웅전

대
웅
전

해설주제	세부 시나리오	
<p>불국사의 중심 대웅전</p>	<p>대웅전</p>	<p>가람의 중심 건물인 대웅전 안에는 중앙에 수미단을 세우고 석가모니불을 중심으로 좌우에 미륵보살과 갈라보살이 협시(불교에서 본존을 옆에서 모시고 있는 불상)하였고 다시 그 좌우에는 흙으로 빚은 가섭과 아난의 두 제사상이 모셔져 있습니다.</p> <p>격을 높여 대웅보전이라고 할 때에는 석가모니불을 주불로 하고, 그 좌우에 아미타불과 약사여래를 모시기도 합니다.</p> <p>석가모니는 인도의 왕자로 태어나 고통 속에서 신음하고 있는 백성들을 보고 보리수나무 아래에서 수행을 한 뒤 큰 깨우침을 얻었습니다.</p> <p>그 후 불교라는 종교가 탄생하게 되었고 지금까지도 많은 사람들에게 신앙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p> <p>대웅전의 정문을 바로 출입하는 것은 불경을 의미하므로 탐방객은 존경을 표하는 뜻에서 정면으로 출입하지 않고 회랑을 따라 움직여야 합니다.</p> <div data-bbox="738 792 1137 1099" data-label="Image"> </div>
<p>말이 없는 곳 무설전</p>		<p>여러분 앞서 이야기한 대웅전에 관한 설명 재미있으셨나요? 자, 이제 무설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p> <p>무설전의 용도는 강당입니다. 아이러니하게도 무설전의 이름을 해석해보면 말이 없는 곳 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왜 무설전이라고 하였을까요? 그 이유는 바로 참된 진리를 깨닫기 위해서는 말이 필요 없다는 부처님의 가르침이 담겨있어 전각이름을 무설전이라고 지었다고 합니다.</p> <p>무설전은 부처님의 말씀이 새겨져 있는 경전을 읽으면서 불교의 교리를 익히는 장소로 이용되는 곳이며, 불국사에서 가장 먼저 지어진 건물로도 유명합니다. 그 옛날 부처님도 불법을 말씀한 뒤에도 “나는 불법을 설한 바가 없다.”고 항상 말씀하셨습니다.신라시대에 만들어진 기단위에 9개의 기둥이 다섯줄로 서서 지어진 이 건물은 1593년 임진왜란 때 불탄 뒤 1708년에 중건 되었으나 안타깝게도 한일합방이후 어떠한 이유에서인지 없어졌다가 1972년 다시 복원되었습니다. 신축된 건물은 발굴 조사를 통해 평면만 복원되었고 상부 건물은 조선 초기의 양식으로 지어졌습니다.</p> <div data-bbox="683 1720 1193 2083" data-label="Image"> </div>

해설주제	세부 시나리오	
<p>말이 없는 곳 무설전</p>	<p>무설전</p>	<p>무설전 한편에는 김교각 스님의 이야기가 전해져오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김교각 스님에 대한 이야기를 잠시 하도록 하겠습니다.</p> <p>“서기 697년에 신라 성덕대왕의 아들로 태어난 김교각스님은 24살 되던 해에 출가하여 당나라로 건너가 각지를 돌아다니며 중국의 구화산이란 곳에서 수행을 하던 중에 어느 남자아이가 길을 잃고 다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마침 김교각스님이 그 남자아이를 구해서 정성껏 치료해주었습니다.</p> <p>이 소식을 들은 남자아이의 아버지는 그 지방의 대단한 재력가였습니다. 또한 구화산의 주인이기도 하였죠. 그래서 자신의 아들을 구해준 은인에게 보답하기 위해서 김교각 스님을 찾아갔습니다.</p> <p>“스님이 구해준 남자아이가 실은 저의 아들입니다. 스님덕분에 가문의 대를 이을 어린자식의 목숨을 구했으니 어떻게 보답하면 되겠습니까?”라고 말하자, 김교각스님은 자신이 입고 있던 가사(스님들이 입는 옷자락)를 벗으며 “제가 입고 있는 이 옷자락만한 땅을 시주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라고 말하자, 그는 “제 아들 목숨을 구해주셨는데, 그깟 가사크기의 땅쯤이야 못 드리겠소?”라고 말을 했답니다.</p> <p>그러자 스님은 높은 법력으로 가사를 찢어 구화산을 모두 덮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구화산에 화성사라는 절을 짓고, 지장보살의 화신(다시 태어난 사람)이 되어 당시 모든 사람들에게 추앙을 받게 되었답니다. 이로부터 구화산은 중국의 대표적인 절이 되었으며, 김교각스님은 지장보살의 화신으로 오늘날까지 전해지고 있습니다.”</p> <p>이러한 김교각 스님의 행적으로 인해서 이 곳 불국사 무설전 안에는 김교각스님의 형상을 한 지장보살상이 있는데요, 이것은 스님께서 ‘1300년 후에 다시 고국인 서라벌로 돌아갈 것이다.’ 라는 말씀을 남기셔서, 1997년 스님의 탄신 1300주년을 기념해 중국의 화성사로부터 김교각 스님의 동상을 기증받아 무설전에 봉안하게 된 것이랍니다. 여러분 중국에서도 이름이 난 김교각스님의 일화를 들으니 역시 불교문화가 찬란했던 불국사는 부처님과 인연이 깊은 곳이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p>
	<p>무설전 ^ 기 동 양 식 및 지 붕 v</p>	<p>대웅전에는 유명한 석가모니 부처님이 모셔져 있다고 설명을 했는데요, 불국사에는 석가모니부처님만 계신 것이 아닙니다. 불국사는 여러 부처님이 계시는 전각으로 배치되어 있어서 독특한 건축구조의 미(美)를 선보이는 곳이기도 합니다.</p> <p>그중 하나가 바로 각각의 독립된 공간임을 표시하는 회랑이란 건물입니다. 회랑의 기둥을 보면 마치 사극에서나 나오는 듯 한 배흘림 양식의 기둥이 줄지어 서 있습니다. 배흘림기둥은 기둥 높이의 3분의 1 지점이 가장 굵고 위나 아래로 가면서 점차 가늘게 되는 기둥으로 옆에서 보면 배가 볼록 튀어 나온 모습입니다. 불국사의 회랑은 멀리서 보면 정말 한국의 건축양식이 아름답다고 생각될 정도로 그 구조와 배치가 뛰어납니다.</p> <p>기둥은 배흘림 양식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대웅전의 기둥은 민흘림기둥으로 되어 있습니다. 민흘림기둥은 기둥뿌리의 지름이 기둥머리의 지름보다 크게 만든 기둥입니다.</p>

말이 없는 곳
무설전

무설전
↑
기둥
↑
양식
↑
뿔지붕
↓
V



▲ 민흘림기둥과 배흘림기둥



▲ 회랑

기둥을 따라 시선을 올려서 하늘과 맞닿은 지붕을 보시겠습니다. 지붕은 그 구조와 형태에 따라서 각기 다릅니다.



▲ 대웅전(팔작지붕)

대웅전의 지붕을 한번 보실까요?

대웅전 지붕의 형태인 팔작지붕은 가장 아름다운 구성미를 지닌 지붕으로 곡면이 특이합니다.

측면에서 지붕을 보면 사다리꼴 모양위에 삼각형을 얹어 놓은 모습입니다.

불국사에서는 자하문과 대웅전, 비로전, 극락전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무설전의 지붕을 한번 보세요. 어떤가요? 무설전의 지붕은 대웅전 지붕과 비교해 볼 때 다른 것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무설전 지붕은 법당에서 유일하게 맞배지붕으로 되어있습니다. 맞배지붕은 지붕면이 양면으로 경사를 이루어 책을 반쯤 펴놓은 '人'자 모양의 지붕입니다. 앞뒤에서 지붕면을 보면 직사각형 모양이고, 옆면에서는 지붕면의 테두리만 보입니다. (보충- 보통 맞배지붕은 향교나 서원 등 강당용도의 건축물에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대부분 맞배지붕은 격식있는 건물보다는 간소한 겸허한 성격의 건물에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불국사에서는 일주문과 천왕문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 천왕문(맞배지붕)

일반적으로 지붕의 구성요소라고 하면 기와만 생각하시지만, 기와에도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기와 종류에는 수기와 암기와가 있습니다.




다음 사진을 보실까요?



▲ 수기와 및 암기와





▲ 수막새와 암막새

해설주제	세부 시나리오	
<p>말이 없는 곳 무설전</p>	<p>무설전 ^ 기 동 양 식 및 지 붕 V</p>	<p>기와아래를 받쳐주는 것이 암키와이고, 암키와 위에 포개져 있는 것이 바로 수키와입니다.</p> <p>이처럼 기와에도 각각의 역할이 있습니다.</p> <p>지붕처마 끝을 꾸미는데 쓰이는 수막새는 수키와의 끝부분에 여러 가지 무늬를 새겨 동그랗게 만든 막새(와당)를 붙인 장식 기와입니다.</p> <p>처마 끝을 꾸미는데 쓰이는 암막새는 암키와의 끝부분에 동그랗게 만들어 연화나 당초 등의 무늬를 새겨 넣은 막새를 붙인 장식 기와입니다.</p> <p>용두는 용마루나 내림마루 끝에 올리는 용머리모양의 장식기와입니다.</p>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around; align-items: center;"> <div style="text-align: center;">  <p>▲용두</p> </div> <div style="text-align: center;">  <p>▲치미</p> </div> </div> <p>치미는 지붕의 용마루 양쪽 끝에 올려진 새의 날개나 물고기 꼬리모양의 장식용 기와입니다.</p> <p>(관음전으로 이동)</p>
<p>자비의 관세음보살을 모신 관음전</p>	<p>관 음 전</p>	<p>이곳 관음전으로 가는 계단은 다른 곳보다 높고 가파르죠?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높은 곳에서 중생을 제도하라는 뜻에서 계단이 높고 가파르답니다. 계단을 오르고 내려가실 때에는 천천히 조심하시기 바랍니다.</p> <p>관음전은 관세음보살을 모신 전각입니다.</p> <p>관세음보살은 줄여서 관음보살이라고도 하는데 불교에서는 가장 널리 알려진 보살입니다.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 때 ‘나무관세음보살’ 하고 부르면 언제 어디서든 나타나 도와준다고 합니다.</p> <p>그래서 자비(모든 생명들의 고통을 없애 편안하게 해주는 것을 말함)를 상징하고 어머니 같은 부드러운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p> <p>또한 머리에 쓴 관을 보면 부처님 한분이 숨어있고 손에 감로수가 담겨있는 정병을 들고 있습니다. 감로수는 배움에 목마른 자가 마시면 지혜를 얻고 목이 마른 사람이 마시면 금세 시원해진다고 합니다.</p> <div style="text-align: center;">  </div> <p>관음전은 751년에 창건되었으나 조선 성종 원년(1470)에 중수되고, 임진왜란 때 불타 없어졌던 것을 선조 37년(1604)에 중창하여 그 뒤 다시 숙종 21년(1695)과 44년(1718)에 두 차례 중창, 그 뒤 어느 때인지 알 수는 없지만 없어진 것을 1973년 복원하면서 새로 조성한 관세음보살 입상을 봉안하고 있습니다.</p>

해설주제	세부 시나리오	
자비의 관세음보살을 모신 관음전	관 음 전	<p>관세음보살 부처님은 동시에 많은 것을 보시기 위해 두 눈으로 감당을 할 수 없어 천개의 눈을 가지시고 또 모두 해결을 해야 하니 두 손으로는 도저히 모자라 손도 천개랍니다. 그래서 이 부처님을 천수천안보살이라 부른답니다.</p> <p>특히 관음전은 지붕이 뾰족하게 나와 있는 사모지붕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건물은 맞배지붕이나 팔작지붕을 하고 있는 것과는 사뭇 다른 형태로 현존하는 사찰에서는 보기 어려운 구조랍니다.</p>
부처님 가운데 가장 높은 부처님인 비로자나불	비 로 전	<p>우리가 지금까지 몇 가지의 국보를 보았죠? 예, 이제 여섯 번째 국보를 찾으러 이동하겠습니다. 비로전이란 이름을 들어 보신 적 있으신가요? 비로전은 비로자나부처님이 모셔진 곳입니다. 비로자나부처님은 빛을 상징합니다. 비로자나부처님이란 어원은 바이로차나(vairocana) 또는 비로차나(virocana) 라는 산스크리트 말을 한자음으로 음역하여 비로자나 또는 비로사나라 부르는데 이 뜻은 ‘빛을 발하여 어둠을 쫓는다’는 뜻이랍니다.</p> <p>금동비로자나불좌상은 국보 26호로 극락전의 아미타여래좌상과 경주국립박물관에 있는 백률사 금동약사여래입상과 함께 통일신라 3대 금동불의 하나입니다.</p> <p>비로자나부처님의 수인법은 ‘지권인’으로 왼손 검지를 오른손으로 감싸고 있는 것으로 오른손은 부처의 세계를 표시하고, 왼손은 인간의 세계를 나타냅니다. 이것으로써 인간과 부처는 둘이 아니며 어리석음과 깨달음이 둘이 아니라는 심오한 뜻을 나타냅니다. 하지만 여기 불국사 비로전에 있는 비로자나불은 좌우의 손의 위치가 서로 바뀌어 곧추세운 오른손 검지를 왼손으로 감싸 전 형식이 특징입니다.</p> <div data-bbox="683 1160 1193 1518" data-label="Image"> </div> <p>대좌와 광배가 없어지고 불신만 남아있으며 얼굴은 풍만하나 근엄한 인상이 강하며 목에는 삼도²⁾를 나타내어 위엄을 보이고 있습니다. 옷주름은 우견편단(오른쪽 어깨는 벗고 왼쪽 어깨에 가사를 걸침)형식으로 얇게 밀착되어 몸의 굴곡이 드러나도록 표현되었습니다. 8세기부터 나타났지만 9세기에 크게 유행하던 것입니다. 크기는 높이 180cm, 머리 높이 55cm, 너비 136cm입니다.</p> <p>751년 창건되고 1593년 임진왜란으로 불타 버린 뒤 현종 원년(1660)에 중수되었으나 그 뒤 황폐화되어 터만 남아있던 것을 1973년 다시 새롭게 지은 건물입니다. 건물터는 발굴조사를 통해 평면규모 및 그 내용이 밝혀져 그 근거에 의해 평면이 복구 되었으며 지상건물은 어떠한 것인지 알 수 없어 고려시대 건물양식으로 복원되었습니다. 물론 그 덕에 불상도 극락전 등 여러 곳으로 이사를 다녀야 했답니다.</p>

2) 삼도 : 보고 닦아서 이상을 실현하는 과정을 말하며 견도(見道),수도(修道), 무학도(無學道)를 삼도라고 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최고의 인격자가 되기 위해 거쳐야 하는 3단계입니다.)

해설주제	세부 시나리오
<p>부처님 가운데 가장 높은 부처님인 비로자나불</p>	<p>전각은 앞면과 옆면 각 3칸씩의 규모에 팔작지붕형태이며 내부에는 중앙에서 약간 뒤쪽으로 치우쳐 설치된 수미단 위에 비로자나불과 후불탱화를 봉안하였습니다. 후불탱화는 1973년에 제작된 것으로 높이 325cm, 너비400cm 크기의 대작입니다.</p>  <p>석가탑과 다보탑은 부처님의 사리를 봉안하는 곳이었죠? 비로전의 옆에 있는 이 사리탑도 사리를 봉안한 것이지만, 현재로서는 여래의 사리탑인지 승려의 사리탑인지는 분명하지 않다고 합니다.</p> <p>심화설명: 불국사사적기(佛國寺事蹟記)」에서 말하는 '광학부도(光學浮屠)'가 곧 이 사리탑을 가리킨다고 하여 스님들의 사리를 봉안한 것이라는 견해가 제시되고 있습니다.</p> <p>여러분, 이 사리탑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p> <p>불국사사리탑은 보물 제61호로서 높이 2.06미터에 상대석과 하대석의 연꽃모양과 중대석에 구름무늬 등을 볼 때 전체적으로 표면장식이 화려하고 세련되어 신라의 양식을 계승한 고려초기의 작품으로 추정됩니다. 한 동안(1905년) 일본인에 의해 불법 반출되었다가 동경에 있는 한 제약회사 사장집 정원에서 발견되어 1933년 다시 찾아온 것입니다. 이와 같은 사실은 우리의 소중한 문화유산을 더욱 아끼고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경각심을 갖게 합니다.</p> 

해설주제	세부 시나리오
<p style="text-align: center;">부처님의 16명 제자</p>	<p style="text-align: center;">나한전</p> <p>자, 지금까지는 각 전각에 모셔져 있는 대표적인 부처님과 보살님을 만나셨죠. 이제 부처님의 제자들을 만나보려 합니다.</p> <p>나한은 아라한을 줄여서 부르는 이름으로 부처님의 제자를 뜻합니다. 그러니까 이곳은 부처님의 제자를 모셔놓은 나한전이라는 곳입니다.</p> <p>나한전은 대웅전과 달리 좁은 폭의 불단을 ㄴ자형으로 배치하여 부처와 나한을 차례로 봉안하고, 깨달음의 정도가 낮은 나한을 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불단을 장식하지도 않고 절집을 장엄하게 하지도 않습니다. 위치 또한 주불전에서 떨어진 자리에 두고, 건물의 외양도 주불전보다 격이 낮게 하는 것이 특징입니다.</p> <p>부처에게는 16명의 뛰어난 제자들이 있어 이들을 16나한이라 합니다. 나한전에는 석가모니를 주존으로 좌우에 아난(阿難)과 가섭(迦葉)이 봉안되어 있으며, 이 두 제자는 석가모니의 수많은 제자들 중 가장 뛰어났다고 합니다. 가섭존자는 석가모니가 말을 하지 않아도 그 뜻을 헤아릴 수 있었습니다. 어느 날 석가모니가 제자들을 모아 놓고 연꽃 한 송이를 들고 미소를 지었는데 모든 제자들이 어리둥절 해했지만, 오직 가섭존자만 함께 웃었다고 합니다. 마음에서 마음을 전했으니 ‘이심전심(以心傳心)’이란 말이 여기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가섭존자와 달리 아난존자는 많은 것을 외울 수 있는 영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석가모니가 남긴 말씀을 모두 기억해 경전으로 정리할 때 큰 역할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불교에서 경전공부를 할 때에는 아난존자를 가장 큰 스승으로 받들니다. 그 좌우로 16나한이 자유자재한 형상으로 배치되어 있고 끝부분에 범천과 제석천(불법을 수호하는 신)을 함께 봉안하는 것이 나한전의 가장 일반적인 형태라 할 수 있습니다.</p> <p>경우에 따라서는 5백 나한을 모신 곳도 있는데, 이것은 부처가 열반한 후 가섭이 부처가 생존했을 때의 설법 내용을 정리하기 위해 회의를 소집했을 때 모인 비구가 5백 명인 데서 비롯된 것입니다.</p>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around;">   </div> <p>이제 마지막 코스인 극락전이 남아있는데요, 불국사에서 연주하는 바람소리와 새소리를 들으면서 아미타여래가 계시는 극락전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죽음이 없는 낙원을 다스리는 부처님이 사는 곳</p>	<p style="text-align: center;">극락전</p> <p>이곳은 극락전인데요.</p> <p>극락세계란 영원히 죽음이 없는 낙원을 뜻하는 말로서 이곳을 다스리는 아미타여래부처님을 모시는 곳이 바로 극락전입니다.</p> <p>아미타부처님이 주불전이 될 때에는 무량수전이라고 하며 주불전이 아닐 경우 미타전 또는 아미타전이라고 합니다.</p> <p>극락전에 안치되어 있는 아미타부처님은 많은 부처들 중 서쪽에 있는 극락세계를 맡고 있는 부처입니다. 통일신라시대 만든 불상으로 국보 27호입니다.</p> <p>불당안의 금동아미타여래좌상은 비로전의 비로자나불좌상보다 3cm정도 더 크며(1.66m) 통일신라시대 불상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p>

해설주제

세부 시나리오

죽음이 없는
낙원을
다스리는
부처님이 사는
곳

극락전

불교에 대해 아는 것이 전혀 없는 사람이라도 아마 나무아미타불관세음보살이라는 말 정도는 알 것입니다. 이 말에서 나무(남무)란 우리말이 아니라 옛날 인도 말인 산스크리트어로 ‘~를 믿고 의지합니다.’ 라는 뜻입니다.

아미타불은 그 좌우에 각각 관세음보살과 대세지보살을 동반하며, 이 두보살로 하여금 중생들을 돕게 하시는 분입니다.

아미타여래의 모습은 한마디로 딱 벌어진 어깨와 당당한 가슴, 늘씬한 몸매에 볼록한 아랫배 등은 건장한 남성적인 체구를 연상시켜줍니다. 또한 옷 주름선은 어깨나 팔을 제외하고는 부드럽고 유연한 편이지만, 가슴의 옷깃안쪽에서 밖으로 늘어지게 한 옷 접힘 또는 팔에서 내려오는 지그재그형의 옷자락, 그리고 배와 다리의 옷 주름 선들이 축 늘어져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어깨와 팔, 무릎의 옷 접힘과 무릎사이에 내려온 형식적인 손과 팔, 무릎 그리고 평평하게 처리한 콧잔등 등에서 직선적이고 부자연스러운 추상화의 경향이 엿보입니다.

따라서 8세기에 제작된 석굴암 본존불의 특징과는 다른 9세기 불상의 특징을 잘 반영하고 있는 당시의 대표적인 작품으로 볼 수 있습니다.

양손은 각각 엄지와 검지를 구부려 아미타구품인 가운데 하품중생인을 맺었지만 좌우 손의 위치가 서로 바뀐 점이 특징입니다.

최근까지 극락전 안에는 아미타불과 비로자나불의 두 불상이 안치되어 있었는데 비로자나불은 원래 대웅전에 모셔져 있던 것을 일제강점기에 극락전으로 모셨다가 지금은 비로전으로 옮겼습니다.

현재 극락전 건물은 임진왜란으로 불타버린 뒤에 영조 26년에 중창된 것이 오늘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1925년 강점기에 중수되었지만 중창 때의 모습에 비해 큰 변화가 없는 듯 합니다.



여러분 ~ 석등 앞에 특이하게 금빛색의 돼지상이 있습니다. 지난 2007년이 돼지해였던 건 다들 아시죠? 황금돼지띠라고 해서 베이비붐을 일으켰던 해였죠. 그런데 공교롭게도 이 극락전에서 돼지가 발견되었답니다. 아주 오래전부터 있었지만 현판 뒤에 있었던 터라 아무도 인식하지 못했던 것이죠. 얼마 전 개그프로에서도 소개가 되어 아주 유명해졌죠.



자, 다음으로 안양문으로 이동하여 연화교, 칠보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동)

<p>해설주제</p>	<p>세부 시나리오</p>	
<p>극락으로 들어가는 안양문</p>	<p>안양문 · 연화교 · 칠보교</p>	<div data-bbox="598 264 1276 631" data-label="Image"> </div> <p>지금 여러분들께서 서있는 이곳이 바로 안양문입니다.</p> <p>안양문의 ‘안양’은 ‘극락’의 다른 이름으로 마음이 편안하고 몸이 편히 쉴 수 있는 극락정도를 말합니다. 수도권의 안양(安養)시와 한자가 같기에 그곳의 주민들은 지역에 대한 자부심이 대단하시죠. 그도 그럴 것이 몸과 마음이 편한 극락 세계에 살고 있으니 당연한 것 아닐까요?</p> <p>현재의 안양문은 1960년대에 중건한 건물로 고려시대 양식으로 건축되었는데, 고(故) 임천 선생께서 설계한 건물로서 강릉 객사문과 도갑사 해탈문을 참고한 것입니다. 안양문은 앞면 3칸, 옆면 2칸 규모의 맞배지붕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잠시 안양문 아래에 있는 돌계단을 보실까요?</p> <p>저 계단이 바로 극락전으로 오르기 위해 있었던 국보 제22호인 연화교와 칠보교입니다. 연화교, 칠보교는 세속 사람들이 밟는 다리가 아니라, 서방 극락세계(사후세계)의 깨달은 사람만이 오르내리던 다리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p> <p>전체 18계단이며, 아래 10단이 연화교로서 각 계단마다 연꽃잎을 새겨놓았다는 점이 특징이고, 높이는 230cm, 폭은 148cm입니다. 금, 은, 유리, 수정, 산호, 마노, 호박의 7가지 보석의 다리(지금은 흔적이 없음)라는 데서 칠보교란 이름이 생겨났으며 나머지 8단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높이는 406cm, 폭은 116cm입니다.</p> <p>앞서 말한 대웅전영역의 청운교, 백운교보다 규모가 작을 뿐, 계단을 다리형식으로 만든 특이한 구성에서 시작하여 경사면을 45도 각도로 구성한 점과 다리 아래가 무지개모양을 그리고 있다는 점 등 구조형식이 매우 비슷합니다. 반면 청운교, 백운교가 웅장한 멋을 보여주는데 비해, 연화교, 칠보교는 섬세한 아름다움을 내보이고 있어, 불국사와 조화된 멋을 잘 보여주고 있으며, 또한 변형의 미(美)도 함께 보여주고 있는 듯 합니다.</p> <p>안타깝게도 계단이 많이 닳아 조각이 희미하고 훼손되어 지금은 통행을 금지하고 있는데요. 연화무늬의 장식과 일곱가지 보석이 놓여져 있었던 다리를 상상하면서 안양문 아래를 내려다보는 시간을 가져 보겠습니다.</p> <p>자~ 어떠세요? 우리가 지금 높은 곳에 있다는 생각이 들지 않으십니까? 우리가 이렇게 높은 곳에 있을 수 있는 것은 모두 극락전을 떠받치고 있는 석단 덕분인데요. 지금 바로 석단을 보러 이동하겠습니다. (이동)</p>

해설주제	세부 시나리오	
<p style="text-align: center;">극락으로 들어가는 안양문</p>	<p>안양문 · 연화교 · 철보교</p>	<p>여러분, 블록쌓기 놀이 해보셨나요? 여기 지금 보시는 돌들이 꼭 블록을 쌓아 놓은 듯하죠? 극락전을 받치고 있는 이 석단은 자연석으로 쌓은 중간 중간에 인공석을 넣어 조화 있게 만들었으며, 경사진 곳에서는 인공석을 비스듬히 쌓아 상승감과 안정감을 준 것으로 아름다운 석단으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아래는 범부의 세계를, 위는 불국토를 나타냅니다. 바닥의 경사와 맞추었기에 높이가 항상 같은 것처럼 느껴지고, 이로 인해 보는 사람은 눈에 피로를 느끼지 않는다고 합니다.</p> <div data-bbox="716 573 1166 860" style="text-align: center;"> </div>
<p style="text-align: center;">끝맺음</p>	<p>문화재보호강조</p>	<p>여러분 이렇게 불국사 전체를 돌아보았습니다. 어떠셨어요? ‘오래된 것이 아름답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오래된 나무, 오래된 그림, 오래된 각에 대한 향수는 이것이 문화유산이기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그 이상의 무언가를 얻을 수 있기 때문일거예요. 문화유산으로부터 느낄 수 있는 고즈넉하고 푸근한 분위기, 마음의 적요함, 우리 선조의 지혜, 옛 조상의 흔적 등에 감동을 받기 때문이죠. 여기에 덧붙여 저는 이런 말도 하고 싶군요 ‘자연은 그 자리 그대로 있을 때 아름답다.’ 나름의 생존전략으로 자연의 질서를 이루고 있는 자연자원과 그러한 자연과 동화되어 훌륭한 예술품으로 승화시킨 우리 선조들의 자랑스런 문화유산을 미래세대에게 전해주는 것은 이제 우리의 몫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한 이 소중한 경험들이 좋은 추억으로 남기를 바라며 불이문을 지나 불국사 탐방을 마치겠습니다. 언젠가 또다시 여러분을 뵙게 될 날을 기다리며 지금까지 자연환경안내원 000이였습니다.</p>